

신청 첫날 접수 마감

9개 사찰 2500여 명 모집하는 ‘서울 템플스테이’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서울시와 함께 12월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는 ‘2014 서울 템플스테이 워크’에 대한 일반인들의 템플스테이 참여여기가 뜨겁다. 지난 17일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9개 사찰 모든 프로그램의 예약이 만료된 것이다. 선착순 2500여 명에 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신청조차 해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 템플스테이 워크’는 12월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시내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7곳에서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도심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을 방문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선센터, 금전사, 길상사, 봉은사, 조계사, 진관사, 화계사와 천태종 관문사, 관음종 묘각사 등이 참여한다. 당일체험과 1박2일 체험형으로 나뉘며, 사찰별로 참선, 발우공양, 108배, 다도, 연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 해를 마감하며 2015년 미래의 나에게 쓰는 ‘타임레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또 주중에 짬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마련했다. 12월3일부터 6일까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마음으로 통해요-스님

과의 토크! 토크! Talk!’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워크’에 신청자가 몰린 것에 대해, 불교문화사업단은 도심사찰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기 편하다는 점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다양한 홍보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서울시장 홈페이지 및 시내 전광판을 통해 이번 행사를 알릴 수 있었다. 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하루 만에 예약이 만료돼 템플스테이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 지역사회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늘어나고 이미지가 상승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지난 19일 제1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참석한 한중일 3국의 불교도들은 남북 분단의 극복과 세계평화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사진은 19일 대회 참가자들이 도라산전망대에서 북녘땅을 바라보는 모습. 아래 작은 사진은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망성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쇼스님 등 3국 대표단의 ‘평화의 종’ 타종 모습. 피주=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한마음으로 한반도·세계평화 ‘발원’

한중일 불교 대표단
파주 도라산전망대서
제17차 교류대회 봉행
“전쟁은 핵불” 평화 선언



“이 종소리가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감동의 범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모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제자들이 한마음으로 불교정토 건설에 앞장서는 보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는 종소리가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 울려 퍼졌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한 제1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에 참석한 불교도 350여 명은 지난 19일 파주 임진각에서 남북분단의 극복과 세계평화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망성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쇼스님 등 대표단과 한국 도산스님, 중

국 심징스님, 일본 니시오키요코스님 등 6명이 참가자들을 대표해 평화의 종을 타종했다.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 조화로운 세계’라는 현수막과 한반도기를 들고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1km 구간을 행진했다. 불교도들이 행진하는 동안 차디찬 철망으로 둘러싸인 민간인 통제구역에도 잠시나마 온기가 돌았다. 평화행진을 마친 한중일 불교도들은 개성공단이 내려다보이는 파주 도라산전망대로 자리를 옮겨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병행했다. 한중일 불교계가 황금유대를 확인하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한 법회는 3국의 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중일 대표단은 제17차 한국대회에서 채택한 대회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을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한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은 “이곳 비무장지대에 평화를 향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전기를 만들고 있다”며 “바로 우리 앞에 보이는 개성공단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성공적 사업의 사례로 함께 하나, 둘 만들어 간 다면, 마침내 이곳에도 평화의 정착되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통일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은 핵불이며, 반불교적이고, 잔인한 폭력”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화합과 평화로운 세계건설 △평화를 위한 협력사업과 평화통일 추진 △불교정토를 이루기 위한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스님들은 지난 1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3국 교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5년 9월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에서 제18차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3월 일본 예비회의에서 대회 장소와 주제 등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피주=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신재호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

홍사성 전 주필 언론인상
홍다영 이준엽 불교기자상



홍사성



신재호



홍다영



이준엽

본지 기자들이 불교언론상 수상자로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신재호 사진기자가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홍사성 전 주필은 불교언론인상을 받게 됐다. 또 한국불교기자협회가 수여하는 2014년 한국불교기자상에 홍다영 기자와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이 기획해설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조재희)는 지난 19일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지 신재호 기자의 ‘성보 빛으로 기록하다’를 특별상에, 불교언론인상에는 홍사성 본지 전 주필(현 불교평론 주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상 수상작 ‘성보 빛으로 기록하다’는 세월에 바랜 성보를 ‘빛’이라

는 도구를 사용해 성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독자에게 전해주기 위해 기획한 사진 기사로,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이라는 대세에 부응하는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홍사성 전 주필은 불교신문 기자로 시작해 주필 직을 역임하기까지 불교언론의 역할과 방향을 정립했으며, 평생 불교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불교계의 신문·방송·TV·잡지와 저서 등을 통해 정법의 당간지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다영 기자와 이준엽 지사장은 ‘영화 명랑을 통해 본 임진왜란과 의승군’이라는 기획기사로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는 지난 17일 “5월에 걸쳐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의승군을 조명하고 일본 불교계의 전쟁 참여 문제, 호국의승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기획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2월3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1일 오후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관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김하영 염태규 기자

세월호 희생자 수륙재 봉행

조계종구호봉사단 29일 팽목항서…구호활동 마무리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220일 넘게 유가족 지원활동을 펼쳐 온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오는 29일 수륙재 봉행을 끝으로 구호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진도사암연합회,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와 공동으로 긴급구호봉사단을 조직,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을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진도실내체육관에 법당과 가족상담실을 운영하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지급대 설치, 신원확인소에서 유가족 위로 및 접수부 지원활동을 펼쳤다.

특히 팽목항에 야외법당을 설치해 매일 4차례 기도를 봉행하고, 하루 13시간의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정부가 지난 11일 세월호 희생자 수색작업을 종료하면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 활동도 종료하게 됐다. 이에 봉사단은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생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이날 수륙재를 봉행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오후2시 남원 선원사 운전스님의 짜장면 보시를 시작으로 추모법요식, 활동보고에 이어 수륙재를 봉행하게 된다. 이어 김경윤 씨의 추모시와 김태린 씨의 극락무, 이당금 씨의 세월호 퍼포먼스와 희생자 304명을 기리는 304개의 풍등 올리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社告	
2015 불교신문 신춘문에 공모	
■ 응모기간: 2014년 11월 10일(월)~12월 10일(수)까지	
■ 응모대상: 불교문화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단편소설 부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평론 부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동화 부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시·시조 부문(6면 이내)	
■ 상 금: -단편소설 500만원 -평론 300만원 -동화 300만원 -시·시조 300만원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 선정	
*관련법에 의한 재산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 당선작발표: 2015년 1월 1일 신년특집호(당선자 개별통보)	
■ 접수처: 서울시 중로구 우정로67(건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 문의: (02)730-4489(신춘문예 담당)	

밝은 내일을 키워가는 꿈

NH농협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성전스님의
행복매지고 싶을 때

낙엽의 자비

만추의 가을 산에 낙엽이 뚝뚝 집니다. 낙엽이 진 자리로 푸른 바다가 겹어와 자리합니다. 나뭇잎 무성하던 여름날에는 보려고 애써도 보이지 않던 바다가 낙엽이 지는 이 만추에는 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겹어와 그 물결을 드러냅니다.

염불암에 올라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무를 베는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베면 보일듯 말듯 한 바다가 훤히 보일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를 억지로 보려고 하는 이 윤회의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나무를 베는 순간 나무의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나무를 베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잔 나무 몇 개를 베고 나서 여름날 바다를 보는 일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숲이 바다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산에 사는 사람의 삶에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염불암에 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님, 앞에 나무를 좀 베세요. 그러면 바다가 훤히 보여서 아주 장관일 텐데요.” 그 때마다 나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숲이 바다를 보여줄 때만 바다를 볼 겁니

다.” 사람들은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낙엽이 지면 바다가 아주 잘 보이거든요. 만추가 되면 숲이 바다로 가는 길을 환히 열어줄 겁니다. 그때 와서 저와 함께 바다를 보시죠.”

밤에 도랑을 거닐며 먼 바닷가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그 불빛들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토록 아름다운 불빛들을 바닷가 마을에 밝혀 놓을 수가 있을까.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는 지상에서의 삶의 아름다움을 꿈꿉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밤이면 발을 씻고 가족들과 함께 지상에 별처럼 아름다운 불 하나 밝힐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라는 꿈.

낙엽은 떨어지며 바다를 남겼습니다. 한 여름 내 꿈고 있던 바다를 해산 하며 낙엽은 가지를 떠났습니다. 자비로운 낙엽. 나는 봄이 오고 숲이 다시 바다를 가릴 때까지 낙엽의 자비를 생각할 겁니다. 나의 가을과 겨울은 그렇게 낙엽과 더불어 자비로 익어가는 시간이 될 것만 같습니다.

남해 염불암